

기대수명 늘자 소비성향 ‘뚝’... “고령 인력 확대해야”

KDI ‘인구 요인이 미치는 영향’

최근 20년간 소비성향 3.1%p 하락
노후 대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필요”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이 소비 성향을 낮추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살아가야 할 날은 많이 남은 반면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10년 뒤부터는 소비성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은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 이는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다는 의미로,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 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소비성향의 하락이 인구 요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의 증가는 소비성향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년간(2004~24년)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3.6%p 하락했는데, 기대수명 증가만으로도 3.1%p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6.5세)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이다. 은퇴연령에 비해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돼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50~60대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전체 평균소비성향은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7.8%p 하락한 가운데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50~60대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2004년 및 2024년 평균)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령별 가구 분포의 변화(즉, 고령화)는 연령대별로 기여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평균소비성향을 6.3%p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소득이 낮은 60대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대소득도 높은 30~40대 가구의 비중 감소도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요인이다. 실제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2004년 15%에서 2024년 36%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고령화가 진행되며 연령별 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다.

반면 초고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는 소

비성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성향이 높은 80대의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세가 둔화된 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생애에 걸쳐 가급적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경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은 장년기에는 낮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비성향의 장기 추세를 전망한 결과 향후 추가 하락이 지속되거나 2030년대 중반부터 점차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성향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했으나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돼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

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돼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해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DH오토웨어 “AI 전방 노면 감지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1차년도 사업 마무리
실질적 제품 설계·구현 본격화



DH오토웨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전방 노면 감지 차량제어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1차년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AI칩 성능검토 단계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DH오토웨어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 내재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책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DH오토웨어는 지난해 7월 ‘AI적용 전방 도로 노면감지 새시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총 10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HL만도, KATCH, 인하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차년도에는 전체 시스템 설계 구상을 완료하고 AI칩 성능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엔비디아(NVIDIA), 퀄컴(Qualcomm) 등 다양한 고성능 칩셋을 대상으로 성능 분석을 진행 중이며, 향후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최적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에는 실질

적인 제품 설계와 구현이 본격화된다. 주요 개발 항목으로는 노면 감지 요구사항 분석 기반 임베디드 AI 제어기 플랫폼 시제품 설계, 카메라 및 센서 인터페이스 설계, 기구 구상 및 상세 설계와 플랫폼 회로 이론 검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제어용 경량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시통합 제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HPC와 Zonal 아키텍처 기반 통합 제어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로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에 따라 차량의 새시를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고성능 HPC 및 Zonal 아키텍처를 적용한 자율주행차의 안전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핵심기술을 내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2차년도 과제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푸드 쇼케이스’ 키친핏 맥스 냉장고 출시

최초 도어 적용...편의성 확대

삼성전자가 키친핏 냉장고 모델 최초로 ‘푸드 쇼케이스’ 도어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주방 가구에 빌트 인처럼 빈틈없이 설치할 수 있는 ‘키친핏 맥스’ 타입 냉장고에, 음료나 소스 등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빠르고 쉽게 꺼낼 수 있는 ‘푸드 쇼케이스’ 도어를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도어 단열재 두께를 줄이고 내부 수납 공간을 확대한 ‘키친핏 맥스’ 디자인의 냉장고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키친핏 맥스’ 디자인이 적용된 냉장고는 좌우 단 4mm만 있으면 가구장에 빈틈없이 딱 맞게 설치할 수 있고, 냉장고 문을 90도 이상 살짝 열 수 있다.

특히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다양한 AI 기술이 탑재돼 차원이 다른 편의성을 제공하며, ‘AI 가전-삼성’ 공식을 이어간다.

반도체 소자로 내부 온도를 조절해 식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을 열거



삼성전자가 ‘푸드 쇼케이스’ 도어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제공

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스비’, 식품관리와 제품 제어부터 사진·음악 감상까지 가능한 ‘AI 스크린’, 냉장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식재료를 인식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비전 인사이트’ 등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에 맞춰 다양한 혜택의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구매하고 삼성닷컴에서 영수증과 시리얼 넘버로 구매 인증을 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밀폐용기를 증정한다.

‘푸드 쇼케이스’ 도어가 적용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모델의 출고가는 용량과 색상 등 옵션에 따라 379만 원~449만 원이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미국은 오랜 기간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달러는 금과 견줄만 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결제 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이룩해 냈다. 국제결제의 8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60%는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신뢰,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지위, 국제사회에 대한 헌신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멀리 봐야 할 저무는 ‘달러 절대성의 시대’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정책과 제재,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균열은 ‘달러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낳았다. 달러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도 가속화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비중을 늘렸고 BRICS 국가들 역시 달러가 아닌 공동 결제 시스템 개발을 논의하며 탈달러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 일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UN 등 국제기구의 탈퇴를 언

급하고 국제원조 중단, 미군 주둔비 증액을 현실화 시켜 국제사회의 반감도 자초했다.

그 결과 미국경제를 포함한 국제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고 미국은 과거의 지위와 신뢰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의 얼굴인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다. 특히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은 곧 달러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음을 말해준다. 달러의 절대적 지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이다. 하지만 달러가 곧바로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금융의 신뢰를 받고 있고 수십 년간 구축된 달러 중심의 방대한 금융 인프라는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달러 절대성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금융의 새로운 통화 세계가 달러패권에 도전장을

내미가 하면 중국과 BRICS 국가 등도 끊임없이 탈달러를 꿈꾸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의 10여 년은 달러패권에서 복수통화가 허용되는, 다극화 통화 세계가 열리는 과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달러의 지위는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미국 국채나 달러에 투자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해서 쉽게 미 국채, 달러 등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달러 관련 상품을 멀리서 바라볼 때인 것 같다.